

“1위 결판내자”... NC-키움 격돌 “샷 감각 좋고 원하는 스윙 돌아왔다”

2020 프로야구 1,2위 오늘부터 2연전 1위 NC 최근 10경기 3승7패로 내리막길 키움 최근 7승3패... 반계임차 턱밑 추격

석달 넘게 1위를 질주하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NC는 5월 13일 처음 1위에 오른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시즌 10승·20승·30승·40승 고지를 차례로 선점했다.

굳건하던 NC의 왕좌는 8월 들어 흔들리고 있다.

NC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급격한 내리막을 탔다. 지난 12일 깜짝 트레이드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NC는 우완 장현식, 내야수 김태진을 KIA 타이거즈에 내주고 우완 문경찬과 박정수를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불안한 불펜진을 보강하기 위한 영입이었지만 문경찬은 이적 후 첫 경기부터 홈런포 2방에 패전투수가 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그 사이 2위 키움은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로 전력 질주했다.

장마에도 지붕 있는 돛구장에서 계속 경기를 치른 키움은 NC를 제치고 시즌 50승에 선착하더니 이제는 선두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이제 두 팀의 격차는 고작 반계임이다. 결과에 따라 선두 자리가 바뀔 수 있는 두 팀의 2연전이 18~19일 창원NC파크에서 펼쳐진다.

선발 싸움은 쉽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정상 로테이션대로라면 NC는 드루 루친스키-신민혁이 차례로 이번 2연전에 선발등판한다.

직전 등판에서 5이닝 8실점으로 KBO리그 데뷔 이후 개인 한 경기 최다 실점으로 부진했던 루친스키가 에이스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NC에는 관건이다.

NC는 지난 13일 1군 선발 데뷔전에서 7이닝 2실점 깜짝 호투로 롯데 자이언츠의 7연승을 저지했던 우완 신민혁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건다.

이에 맞서는 키움은 한현희-제이크 브리검으로 맞불을 놓는다.

한현희는 최근 2경기에서 모두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2.77의 잔물 피칭을 펼쳤다.

브리검은 직전 등판에서 올 시즌 첫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에 성공했다.

키움은 이번 주 주전 외야수 임병욱이 복귀해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위서 4위로 내려앉은 두산 베어스와 6위에서 7위로 주저앉은 롯데는 18일부터 운명의 4연전을 벌인다.

18~19일은 롯데의 안방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2연전을 치르고, 20~21일은 두산의 홈인 서울 잠실구장에서 2연전을 진행한다.

두산은 선두 경쟁에 다시 가세하기 위해, 롯데는 중위권 도약을 위해 놓칠 수 없는 4연전이다.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는 두산이 5승 1무 4패로 다소 우위에 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험난한 체력 싸움에서 어느 팀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본격적인 상승세를 탄 LG 트윈스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느냐도 이번 주 관전 포인트다.

LG는 지난 주말 3연전에서 선두 NC에 시즌 첫 3연전 싸움에 패배의 수모를 안겼다. 5연승의 파죽지세로 '잠실 라이벌' 두산을 끌어내리고 3위로 올라섰다.

LG는 이번 주 KIA 타이거즈, 키움, 한화 이글스를 차례로 만난다.

한편 18일부터는 확대 엔트리가 시행된다. 1군 엔트리가 기존 28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난다.



‘삼다제패(3세·수)’가 8, 9번 출발 게이트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경주 초반 선두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어 미래황제가 결승선 전방 200m 지점까지 선두를 지켜 대이변이 연출될 것처럼 보였지만, 선두 바로 뒤에서 안정적인 경주 전개로 역전을 노린 원당봉이 막판 스피드를 올리면서 짜릿한 역전 명승부를 펼치며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제주경마공원 이태용 조교사는 이날 대상경주 우승과 함께 1, 6경주에서도 승리를 차지, 총 3승을 추가했다. 이는 데뷔 이후 만 9년 만에 600승의 대기록을 초고속으로 달성한 것으로, 통산 전적 3705전·602승·승률 16.2%·복승률 29.0%를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관록의 ‘원당봉’ 한라일보배 우승

제주마 ‘원당봉(9세·거)’이 한라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짜릿한 역전우승을 일구며 정상에 등극했다. >> 사진 9살의 노장 원당봉은 지난 15일 제주경마공원에서 4경주로 열린 ‘제27회 한라일보배 대상경주(1200m·

총상금 9000만원)’에서 폭발적인 막판 뒷심으로 질주하며 2위 ‘태양봉’을 0.7초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경주기록은 1분 33초4다. 이날 경마에서는 제주경마공원 대표 3세마인 ‘미래황제(3세·수)’와

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 임성재 16언더로 공동 9위 패택스컵 플레이오프 앞뒤 “좋은 성적 낼 것” 자신감



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6언더로 공동 9위에 오른 임성재. 연합뉴스

임성재(22)가 약 두 달 만에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10위 이내 성적을 낸 뒤 “원하는 스윙이 돌아왔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임성재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끝난 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640만달러)에서 최종합계 16언더와 264타를 기록해 공동 9위에 올랐다.

임성재가 PGA 투어 대회에서 10위 이내 순위를 기록한 것은 6월 찰스 슈와브 챌린지 공동 10위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찰스 슈와브 챌린지 이후로는 7개 대회에 출전해 컷 탈락이 세 번이나 나왔고, 최고 성적 역시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페덱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셔널 공동 35위였을 정도로 좀처럼 상위권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2019-2020시즌 PGA 투어 페덱스컵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다시 ‘톱10’ 성적을 달성하며 20일 개막하는 플레이오프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날 최종 라운드 15번 홀(파5)에서 약 20m 가까운 긴 이글 퍼트를 넣고 환호한 임성재는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찰스 슈와브 대회 이후 성적이 나지 않고 샷감도 안 좋았다”며 “이번 주에 원하는 스윙이 돌아왔고, 샷 감각도 좋아서 나올 내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는 컷 탈락했지만 윈덤 챔피언십 4라운드 내내 60대 타수를 기록한 임성재는 2019-2020시즌 페덱스컵 순위 5위로 플레이오프 대회에 나가게 됐다.

PGA 투어는 정규 시즌까지 페덱스컵 순위 상위 125명만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가며 2차전에는 상위 70명, 마지막 3차전에는 30명만 출전할 수 있다.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가 2019-2020시즌 페덱스컵 챔피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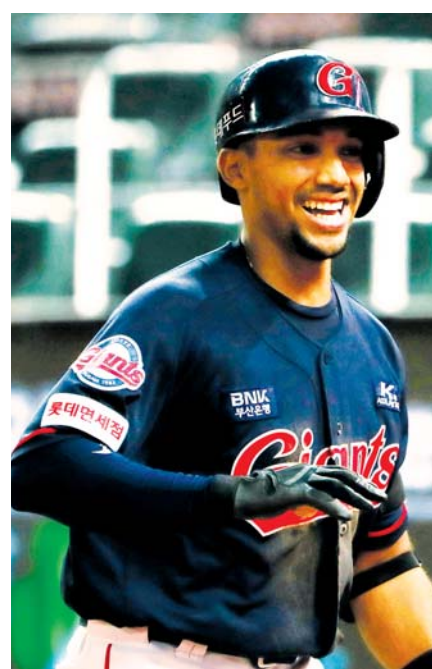
임성재는 정규 시즌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10명에게 주는 ‘윈덤 리워즈’ 보너스100만달러도 받았다. 정규 시즌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10명에게 주는 이 보너스는 1위가 200만달러를 시작으로 10위에게 50만달러까지 차등 지급된다.

임성재는 2019-2020시즌 상금 431만 6341달러를 벌었고, 여기에 ‘윈덤 리워즈’ 보너스 100만달러까지 더하면 531만 6341달러의 수입을 확보했다. 한국 돈으로 약 63억원이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 우승도 한 번 했고, 톱10에도 여러 번 들어서 정규 시즌을 5위로 마쳤다”며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순위로 끝나서 행복하고 남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PGA 투어 2019-2020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인 노던 트러스트는 오는 2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에서 개막한다.



롯데 마차도, 프로야구 올스타 중간집계 1위

타율 0.306·7홈런 맹활약 유격수 부문 30만표 넘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유격수 덕 마차도(28·사진)가 올스타 팬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17일 KBO에 따르면 2020 신한은행 솔(SOL) 올스타 ‘베스트 12’ 선정 팬 투표 1차 중간 집계 결과, 마차도가 전체 선수 중 최다 득표 1위에 올랐다.

드림 올스타 유격수 부문의 마차

도는 전체 선수 중 유일하게 30만표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30만6654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 중이다.

마차도는 넓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 수비를 펼치고 있다.

두 시즌 연속 최다 실책 1위였던 롯데가 올해 최소 실책 1위로 탈바꿈한 배경에 마차도의 지분이 절대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마차도는 타격에서 타율 0.306에 7홈런, 46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25로 맹활약 중이다.

One Korea 피스로드 2020, 제주특별자치도 통일대장정

일시·장소 2020. 8. 20(목) 10:00~12:00, **제주시 신산공원(일도2동)**

주최 피스로드 제주도 조직위원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제주특별자치도회

주관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4지구 실행위원장 임 중 혁

후원 행정안전부, 통일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통일준비위원회
국민위원 희망자는 읍면동회장 추천으로 위촉함

※ 코로나19사태로 행사를 간소하게 함으로 초청되신 분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바랍니다

참 여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제주특별자치도회 남북통일준비위원회

UN 참전국 용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Naver Forget 6.25전쟁 70주년

전투지원부대
파견 16개국

의료지원부대
파견 6개국

상임고문: 문두균 **자문위원:** 고용구·고충연·고태신·고태중·김두연·김병수·김장관·신방식·정옥자·진중대·한성울·홍명규·홍성보

한림읍 회장 홍군석	여성회장 한정자	애월읍 회장 강인중	여성회장 이진화	조천읍 회장 한석범	여성회장 부영자	구좌읍 회장 한대용	여성회장 부옥희
한경면 회장 김영호	여성회장 좌순옥	추자면 회장 원윤수	여성회장 박혜성	우도면 회장 한두영	여성회장 김옥	일도1동 회장 김재만	여성회장 박계량
일도2동 회장 오문호	여성회장 한월자	이도1동 회장 한창수	여성회장 윤순복	이도2동 회장 강용호	여성회장 김미순	일도1동 회장 문영희	여성회장 고옥희
삼도2동 회장 장재춘	여성회장 강숙생	용담1동 회장 송창홍	여성회장 부영자	용담2동 회장 현대익	여성회장 고영자	건입동 회장 한계숙	여성회장 임애자
화북동 회장 김진평	여성회장 이수순	삼양동 회장 김하영	여성회장 문봉순	봉개동 회장 문용호	여성회장 안순자	아라동 회장 전태욱	여성회장 고영순
오라동 회장 김창규	여성회장 유명순	연도동 회장 조행수	여성회장 문봉순	노형동 회장 현공화	여성회장 정경순	외도동 회장 이광호	여성회장 이춘희
이호동 회장 박상주	여성회장 정택숙	연두동 회장 문정단	여성회장 박인애	대성동 회장 정문후	여성회장 임정순	남원동 회장 현창대	여성회장 이승희
성산읍 회장 강국식	여성회장 허애선	안덕면 회장 고상호	여성회장 박인애	표선면 회장 안재수	여성회장 강경화	송산동 회장 이근섭	여성회장 변영희
정방동 회장 한태원	여성회장 윤정애	중양동 회장 허충준	여성회장 오순옥	천지동 회장 김봉수	여성회장 문정숙	효돈동 회장 권기홍	여성회장 강경자
영천동 회장 강치연	여성회장 원금선	동홍동 회장 김창영	여성회장 오문석	서홍동 회장 고용길	여성회장 윤정열	효돈동 회장 고창두	여성회장 오신춘
대천동 회장 백순오				에래동 회장 강완준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피스로드 조직위원회 한국실행위원장 **송 광 석**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제주특별자치도회 공동회장 **고민수·강창익·황치훈**